



채은하(한일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성경 저자들은 여성에 대하여 길게 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예외적으로 드보라, 에스더 등). 그런데 구약 외경(제2정경)은 다양한 여성들의 등장과 활동, 특히 영웅적 행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마카비서(1-2서)에 등장하는 익명의 용감한 여성들(순교자들)과 수산나와 에스더(에스더 부록에 등장하는 에스더), 특히 유딧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로 인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낸 여성의 영웅담이다. 그런데 유딧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유딧이 성폭력의 자리를 스스로 마련한 점이다. 그녀의 명분은 베를리아 성읍을 앗시리아의 위협으로부

터 구출하기 위한 일이었다 그 방법은 적장(홀로페르네스)의 살해를 목표로 성폭력의 위협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다. 유딧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지만 그녀가 겪었을 성폭력의 두려움과 수치와 실패할지도 모를 불안감을 혼자 견뎌냈던 부분은 적장의 죽음과 베를리아의 승리와 환호성에 그냥 묻힌다. 아마도 유딧기의 원래 의도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신앙 보존에 초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유딧기 저자를 비롯하여 이 책과 관련된 여러 주석서들과 논문들은 유딧의 성폭력 문제를 거의 간과한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에 이 글은 거의 유딧기 본문 이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한계가 있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딧은 자신의 외모를 무기로 그 성읍을 구하기 위해 성폭력을 감수했다는 점은 유딧기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필자는 민족과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성폭력의 위협에 자신을 노출시킨 유딧의 삶을 상상하면서, 그런 유딧을 묵인하거나 도외시하는 유딧기 저자와 베를리아의 남성 지도자들(10:10)의 무심함을 고발하고 나아가 성폭력의 피해자와 이와 유사한 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남녀 모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

2. 유딧기의 배경, 구조와 내용

유딧기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 사회가 외부(헬라)의 침략에 의해 존립이 위태로운 시대의 작품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훈적인 역사 소설이다.¹ 이 당시 유대 사회는 국왕이 없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요야킴과 원로들(시므온 지파 미가의 아들 우찌야, 고토니엘의 아들 카브

1 유딧기는 역사 소설에 속하지만 에스더, 마카비 1,2,3서와 같이 유대인의 구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Jan Willem van Henten, "Judith as Alternative Leader: A rereading of Judith 7-13", *Feminist Companion to Esther, Judith and Susanna*, Athalya Brenner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26.

리스, 멜키엘의 아들 카르미스(6:15, 8:10)의 지도 아래 살았던 신정 공동체였다(4:6-8). 또한 더럽혀졌던 성전과 기물과 제단을 정화한 사건이 불과 최근의 일이라고 언급한 것(4:3)은 마카비 집안의 대대적인 투쟁과 주전 164년 마카비 전쟁의 승리로 잠시 독립을 얻을 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다.² 유딧기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포로 이후 또 다시 이어진 외부 침략(헬라)으로 어려워진 위기 상황이 이 책의 저작 시기이고 저작 이유로 봐야 할 것이다.

유딧기는 크게 세 부분³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제1부: 느부갓네살 왕의 승승장구 (1-6장); 2) 제2부: 베틀리아의 위기와 무력한 지도자들(7장); 3) 제3부: 유딧의 성폭력과 퇴장(8-16장). 사실 1-6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성공을 장황하게 설명할 뿐 유딧과는 거의 연결점이 없다. 제2부가 시작되는 7장에 가서야 베틀리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유딧이 등장한다. 특히 물줄기 봉쇄로 인해 마을의 항복을 5일 동안 유예하지는 우찌야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알려진다. 제3부에서 드디어 유딧이 정면으로 나서게 되고 그녀의 정면 대결로 유대의 승리와 무사 귀환, 그러나 그녀의 영원한 퇴장과 침묵으로 끝을 맺는다. 이 글은 유딧이 등장하는 7장부터 16장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유딧의 성폭력 전략과 실행, 그러나 이에 반해 저자와 남성 지도자들의 소극적 태도와 그녀의 퇴장에 맞춰져 있다.

3. 유딧(의 저자)은 (反?)페미니스트인가?

미투 운동⁴은 우월한 직위를 남용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이

- 2 유대인은 하스모니아 왕조 기간 동안(142-63 B.C.) 비교적 평온한 시절을 보냈다. David A. deSilva, *The Apocrypha* (Nashville: Abingdon Press, 2012), 4.
- 3 크레이븐(T. Craven)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은 유딧기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나 내용 전개를 볼 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게 더 낫다. Toni Craven, "Artistry and Faith in the Book of Judith", *Semeia* 8 (1977), 75-101; D. A. deSilva, *Introducing the Apocrypha*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88-89.
- 4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2017년 10

다. 하지만 유딧은 성폭력의 위협에 자신을 스스로 노출하였기에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홀로페르네스를 비롯하여 주변 남자들의 부담스런 시선을 조롱하듯이 미모를 활용해서 자신과 유대 민족의 승리를 이끌어냈었기에 성폭력의 피해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그녀는 성폭력의 위협에 처할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장을 살해한 만큼 유딧의 피해나 상처는 거의 없거나 최소화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딧기 저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여주인공 유딧의 용기, 적장의 살해와 결과적으로 유대의 승리에 집중한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유딧에게서 매우 긍정적이고, 강한 페미니스트적 요소들을 발견한다. 대표적으로 유딧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니켈스버그(G. W. E. Nickelsburg)와 무어(C. Moore)에게서 나온다. 니켈스버그는 유딧기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페미니스트의 중요한 요소로 본다. 유딧은 그녀와 연관된 남자들, 즉 우찌야와 원로들, 아시리아 군대나 그들의 사령관보다 우월하게 묘사된다. 아시리아 군대의 바고아는 "히브리 여자 단 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궁에 욕을 보였다"(14:18)고 감탄할 만큼 유딧을 치켜세운다. 유딧의 용기, 신앙과 지혜가 유딧기에 등장하는 모든 남성들에게서 결여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요아킴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도 "당신(유딧)은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영예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15:9)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니켈스버그는 그녀의 속임수는 남성의 약점에 적합한 무기이기에 유딧을 우월한 페미니스트로 본 것이다.⁵ 이와 유사하게 유대 공동

월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MeToo)를 다는 것으로 대중화되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본격적으로 2018년 1월 29일 현직 검사 서지현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한국의 유명인들에 의한 성폭력 실상이 폭로되면서 급기야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러 유명인들이 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D%88%AC_%EC%9A%B4%EB%8F%99. 2020년 2월 11일 접속.

5 George W. E. Nickelsburg, *Jewish Literature between the Bible and the Mishnah* (London: SCM, 1981),

체를 구출한 유딧은 작은 출애굽 사건처럼 해방의 모범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⁶ 그런 점에서 유딧은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해방을 몸소 실천한 여성이라고 주장한다.⁷ 이렇게 업적의 관점에서 유딧을 영웅으로 대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녀가 페미니스트라는 논점은 너무 단순해 보인다. 왜냐하면 주인공 혹은 결과에 따라 에스더나 룿을 페미니스트라고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지도력은 극도의 위기 상황, 이를테면 국가의 위기나 남성 지도력의 부재와 같은 상황에서만 발휘될 뿐 그 상황이 종료되면 여성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⁸

한편 무어(C. Moore)가 발견한 유딧의 페미니스트적인 요소는 특이하다. 유딧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되어 있기에 그녀에게는 성(性)이 없다고 한다. 유딧은 베를리아에서 원로들과 함께 남성으로 활동하고, 또 앗시리아 진영에서도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르고 앗시리아 군대가 패배할 때까지 남성처럼 행동한다. 그런 후 유딧은 다시 여성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다면 유딧은 어느 한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는 여주인공이기에 그녀는 분명 페미니스트라고 한다.⁹ 유딧은 저자가 살던 시대 문화의 성차별을 뛰어넘는 여주인공이라고 무어는 결론짓는다.¹⁰ 그러나 페미니즘은 '생물학적인 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양성평등을 근거로 여성의 지위·역할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여성운동'¹¹이라는 일반적 정의를 적용할 때 기존의 남녀 역

할의 공존을 페미니즘과 동일시하는 무어의 이해는 지나쳐 보인다.

이처럼 유딧의 페미니스트적인 요소를 찾는 사람들은 유딧이 주인공이라는 점과 유딧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동시성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유딧은 유대 공동체의 운명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영웅으로서 또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점¹²은 주목할 만하지만 그 시대의 가부장적 가치에 어떤 변화도 여성의 위치나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녀를 페미니스트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이와는 반대로 유딧 혹은 유딧기의 저지는 위험할 정도로 가부장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부장적인 요소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유딧을 결코 페미니스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로 밀네(P. Milne)를 꼽을 수 있다. 그녀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 지배의 세계에서 겪은 억압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인정하고, 여성에 대한 형평성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페미니스트 이야기는 여성의 품위를 높여야 하며, 여성 중심적이고 여성 정의가 있어야 하기에 유딧이 결코 페미니스트이거나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¹³ 오히려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유딧에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녀는 영웅적 사건을 완성한 후 원래의 자리, 과부의 모습으로 서둘러 돌아간다. 그녀의 진정한 능력인 지혜, 경건, 헌신과 용기는 묻혀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한 남자의 여자(man's woman)로서 단지 조력자일 뿐이라고 한다.¹⁴ 그녀는 시므온과 세겜 지역의 복수를 기억하지만 성폭력의 희생자인 디나와 세겜 지역의 여성들의 곤경을 외면하고 있기에 유딧은 여성 정체성의 정반대라고 주장한다.¹⁵ 유딧은 오히려 여성은 열등하고 부차적이라는 가부장적 이념

108.

6 John F. Craghan, *Esther, Judith, Tobit, Jonah, Ruth* (Delaware: Micahel Glazier Inc., 1982), 66-67.

7 Carey A. Moore, *Judith,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5), 64-66; T. Craven, *윳글*, 117-118.

8 Tal Ilan, *Jewish Women in Greco-Roman Palestine* (Peabody: Hendrickson, 1996), 150.

9 에슬러는 유딧을 남성과 여성의 경계선상(liminal figure)에 있는 인물로 이해한다. Philip F. Esler, "Ludic History in the Book of Judith: The Reinvention of Israelite Identity?", *Biblical Interpretation* 10 (2002), 129-130.

10 C. Moore, *윳글*, 65.

11 Margaret A. Farley, "Feminist ethics", *A New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John Macquarrie/James Childress (ed.) (London: SCM, 1967), 229-231;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3p2199a>, 2020년 2월 14일 접속.

12 J. W. van Henten, *윳글*, 251-252.

13 Pamela J. Milne, "What shall we do with Judith?: A feminist reassessment of a biblical heroine", *Semeia* 62 (1993), 48.

14 P. Milne, *윳글*, 54.

15 P. Mine, *윳글*, 54.

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비록 그녀가 자신의 민족을 앗시리아 군대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유딧은 자신이나 그녀의 동족들이 가부장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에 동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¹⁶고 한다.

마찬가지로 키스(H. Efthimiadis-Keith)도 유딧은 주인공은 될 수 있지만 페미니스트는 아니라고 한다. 유딧은 단지 가부장적 힘을 가진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유딧은 해방된 여자도 아니고 눈에 띄는 자리에 오르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사적인 자리로 돌아오고 남성 중심적인 유대 사회에 깊숙이 묻힌다. 이것은 유딧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전형적인 종속적 역할과 모델이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한다.¹⁷ 레빈(A-J. Levine) 역시 페미니스트적인 유딧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유딧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나선 때는 그녀가 무덤에 묻혔을 때뿐이다. 살았을 때나 죽음의 자리에서나 유딧은 아내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그녀가 지켜야 할 자리는 남성이 지배하는 자리 밖에 머물러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¹⁸ 유딧은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 그대로 순응하고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여성이다. 어쩌면 이런 그림은 유딧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은 언제라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 용납될 수 있다는 저자 및 그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유딧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페미니스트적인 혹은 그와는 정반대로 반페미니스트적인 요소로 설명되곤 한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들 모두 유딧이 겪었던 성폭력 문제는 그대로 간과한다는 점이다. 유딧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유딧의 유혹과 성폭력,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이는

거의 없다. 사실 유딧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유딧과 그녀가 만나는 남자들이 던지는 그녀의 미모 칭찬과 그와 관련된 성적 호기심에 있다. 그러므로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유딧은 영웅적 인물이지만 ‘성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점이다. 유대의 승리와 기쁨에 취한 나머지 유딧이 겪어야 했던 바로 성폭력의 고통과 기억에 대하여 저자와 독자들은 모른 척한다. 따라서 이 글은 ‘성폭력’의 관점에서 유딧의 이야기를 보려는 것이다.

4. 유딧의 등장과 성폭력

1) 유딧이 등장하다.

유딧의 족보에는 구약성경(외경 포함)에 등장하는 여성들 가운데 가장 긴 족보, 무려 부친 므라리의 15대에 걸친 윗세대가 차례로 나열된다(8:1). 이 조상들의 이름이 유딧기의 저작 장소와 기원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¹⁹ 특이한 사실은 유딧이 여성임에도 그녀의 조상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딧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부분이다. 또한 유딧의 과부 인생을 소개하는 데에서 유딧기 저자의 영리한 계산법을 찾을 수 있다.²⁰ 유딧이 대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 이전 3년 4개월(40개월) 동안 과부로 살았다(8:4)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연상시킨다. 그녀가 과부로 살았던 40개월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40년 세월이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시킨 기간이 되었던 것처럼 유딧의 과부 생활 역시 영웅의 태동기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또한 베투리아가 포위된 지 34일(7:20)이라고 한 숫자 3과 4는 유딧이 과부된 지 3년 4개월의 숫자와 일치한다.

16 P. Mine, 윗글, 55.

17 Helen Efthimiadis-Keith, "Judith, Feminist Ethics and Feminist Biblical/Old Testament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38 (2010), 96-98.

18 Amy-Jill Levine, "Sacrifice and Salvation: Otherness and domestication in the book of Judith", *Feminist Companion to Esther, Judith and Susanna*, Athalya Brenner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222; D. A. deSilva, 윗글, 2012, 4.

19 브런즈는 유딧의 조상들의 이름을 분석하면서 유딧기의 저작 장소와 기원을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집트의 레온토폴리스(Leontopolis)로 보고 있지만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J. Bruns, "The Genealogy of Judith", *CBQ* 18 (1956), 19-22.

20 A-J. Levine, 윗글, 213.

주인공 유딧에 관한 저자의 서술에서 여성에 관한 당시의 이상형을 엿볼 수 있다. 유딧은 므낫세라는 남편을 일찍 잃은 아마도 젊고(?) 아름다운 과부이지만 금은보화와 종들과 가축과 토지를 소유하고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여성이다. 그럼에도 유딧은 자기 집 옥상의 천막에서 베포과 과부 옷차림으로 정결한 음식(12:19)과 철저한 금식(8:6)과 기도(9장)에 충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금식 생활은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과 그믐날과 초하룻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일과 경축일을 제쳐놓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8:6)할 만큼 철저하다. 유딧의 이런 생활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 것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유딧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8:8). 금식과 기도는 신구약 중간 시대의 전형적인 경건 생활이다.²¹ 그러므로 유딧은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었고, 거기에 아름답고 부족한 것이 없는 유능한 여성이다(잠 31장을 연상시킴). 저자는 고대와 현대의 모든 독자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딧의 이런 모습을 본받을 것을 의도하는 듯하다. 이렇게 훌륭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유딧이지만 그녀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때 성폭력의 위협에도 선뜻 나선 희생적 여성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유딧이 남성 지도자들의 묵인 아래 성폭력의 자리를 견디게 되는데 그 과정을 찾아보기로 한다.

2) 유딧이 성폭력을 계획하다.

(1) 남성 지도자들이 묵인하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국가가 이 의무를 잘 수행하면 백성은 안전하고 자유롭게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유딧은 그런 평범한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 베투리아가 곧 적군

21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온 구약 외경이 강조하는 유대인의 경건 생활은 율법 준수, 특히 정결법, 금식과 기도와 자선에 집중되어 있다(토 3:2-6, 11-15; 마상 3:44-48, 4:8, 16, 30; 마하 1:17; 집 22:17-23:6 등).

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 물줄기의 봉쇄 작전으로 그들의 최고 지도자 우찌야가 앞으로 5일 내로 비가 오지 않으면 적군 앓시리아에게 그 도성을 내주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한 사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딧은 먼저 자기 집의 재산 관리자에게 그 도성의 남성 지도자들, 우찌야를 포함하여 카브리스와 카르미스를 자기 집으로 불러와서 정면으로 그들을 마주한다(8:10, 28). 그들에게 유딧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소신있게 밝힌다(8:11-27). 한날 과부가 그 마을의 남성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소집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유딧의 사회적 위치나 평판이 평상시에도 탁월했던 것 같다. 유딧은 이들에게 지금 베투리아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지 ‘하나님의 시험’(8:25; 신 8:5; 시 94:12)일 뿐 하나님께서 그녀의 민족을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이들의 결정에 도전한다. 이에 우찌야는 그 결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유딧의 기도라면 비가 와서 도성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그들의 무능을 합리화한다. 나아가 이들은 유딧이 자신의 화려한 외모를 무기로 장군의 유혹자가 되어 성폭력의 위협을 감수할 것을 묵인 혹은 관망하는 자세로 그 은밀한 계획, 즉 ‘성폭력의 자리’를 묵인한다.²² 이것은 우찌야가 유딧에게 “...당신은 경건한 부인입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8:31).”고 말한 것을 볼 때 유딧의 계획을 넌지시 지지해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때 유딧은 말한다.

유딧: “내 말을 들으시오. 우리 후손대에 길이 남을 만한 한 가지 일을 이루어놓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 말도 묻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다 끝낼 때까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8:32-34, 「공동번역 개정판」).

우찌야와 다른 원로들: “안녕히 가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셔서 우리 원수들을 벌해 주시기를 빕니다”(8:35, 「공동번역 개정판」).

22 C. Moore, 윗글, 185-186.

이렇게 유딧은 이 남자들에게 “우리 후손대에 ‘길이 남을 만한 한 가지 일’”(8:32)을 이룰 것이니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이 남성 지도자들이 정말 유딧의 계획을 몰랐을지 의심스럽다. 그 ‘일’이란 헬라이어 *tēn praxin*(텐 프락신)을 번역한 것인데 그 의미는 ‘행동 혹은 부끄러운 행동’²³을 뜻한다. 하지만 이 남자들은 ‘그 일’을 모른 척한다. 묻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원로들이 유딧의 계획과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유딧이 짐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들은 유혹자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유딧이 베틀리아 성문을 빠져 나와 적진으로 들어갈 때 직접 환송하면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10:6, 8)는 말까지 보냈던 것을 보면 이들은 결코 유딧의 ‘그 일’을 모를 리 없다. 유딧기 저자는 지도자들도 몰랐던 일인 것처럼 동시에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지만 수없이 반복하는 찬사, ‘이 아름다운 유딧’(8:7, 10:4, 7, 14 등)이 적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의 외모를 무기로 유혹자가 되는 일이라고 상상하게 만든다.

유딧이 말하는 ‘길이 남을 만한 한 가지 일’, 바로 ‘성폭력의 자리’를 만들어 자신이 유혹자요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서 적장을 죽여 민족을 구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그 일을 단지 아는 체할 수 없는 은밀한 거래, 즉 성폭력의 자리라는 것을 묵인하면서 유딧의 모험과 고통을 외면했고, 또 그 공동체의 운명을 유딧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남성 지도자들이었다.²⁴ 이들은 유딧의 계획이 성공을 하면 덕분에 국가의 위기를 넘긴 유능한 지도자가 될 것이고, 실패를 한다 해도 유딧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3 William Arndt, “πραξις”,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697-698.

24 이온에는 다말의 가족들(부친 다윗과 오빠인 압살롬)이 다말의 보호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폭행 사실을 침묵하도록 강요하거나 방치한 것은 권력을 얻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억압적인 권력형 폭력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딧이 홀로페르네스를 죽이고 유대의 승리를 가져온 후 물러나 조용히 칩거한 일은 유딧이 그러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이온애, “권력과 성폭력 -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5(2019), 237-238.

(2) 유딧이 기도하다.

남성 지도자들을 만난 후 유딧은 전형적인 참회의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기도한다(8:5, 9:1). 성폭력의 주제가 이 기도의 주요 요소이다. 가장 분명한 언급은 유딧이 하나님을 “내 조상 시므온의 하나님”으로 부른 데서 시작된다(9:2). 이 기도에서 유딧은 야곱의 딸 디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당한 강간과 이것을 복수한 시므온(과 레위)의 세겜인 학살(창 34:25-31)을 언급한다. 또한 유딧은 “욕을 보이고, 아랫도리를 드러나게 하고 모욕을 주고 태를 범하여 수치를 보게 한 일”(9:2)이라고 디나의 성폭행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시므온에 의한 세겜인의 학살처럼 유딧은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시킨다. 유딧은 베틀리아의 함락을 디나의 성폭행과 동일시하고, 이를 복수하기 위하여 앗시리아 적장의 암살 성공을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과부의 말을 들어 주소서.”(9:4),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9:12) 이것에 대하여 레빈은 유딧은 유대 공동체를 대표하고, 디나의 성폭행과 베틀리아의 포위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처녀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베틀라(*betûlāh*)와 베틀리아(*Bethulia*)라는 이름 사이의 유사성은 저자의 의도가 치밀하게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가 앗시리아 군대와 맞서고 적장을 죽인다는 점에서 유딧을 군사적 영웅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녀의 방법은 지극히 비군사적 무기이다. 자신이 마련한 성폭력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수해 달라고 유딧은 기도한다. 9장 4절에서 유딧은 - 창세기 34장에는 생략 - 세겜인의 아내들과 딸들이 강간을 당하는 복수를 언급한다. 이것은 유딧이 자신에게 닥칠 성폭력의 위협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유딧의 기도는 자신이 겪게 될 성폭력의 노골적인 암시와 정당한 복수와 민족의 생존과 하나님의 승리에 집중되어 있다.

25 A-J. Levine, *읽글*, 211.

(3) 유딧이 성폭력을 견뎌 내다.

유딧은 과부 옷차림을 벗고 남자를 유혹할 만한 장신구와 화려한 옷과 향유와 머리를 빗고 그 위에 ‘머리치네’(hair ribbon)와 고운 천으로 치장함으로써 유혹자의 모습을 갖춘다. 모든 남자들(유대 지도자들, 성문 경비병들, 군인들 등)과 마주하는 유딧, 이들은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는다. 그녀는 미모와 말재주로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만나고 유혹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그녀가 마련한 자리는 바로 성폭력이 난무한 무대인데 유딧은 화려한 치장과 유창한 거짓말과 계획적인 기만으로 이 일을 성사시키려 한다. 에슬러(P. Esler)는 유딧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지중해의 집단주의적 문화적 환경 때문이라고 한다. 즉 외부인, 특히 내부 집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타인들에게 계략과 회유를 사용하는 것은 집단 충성의 표시라고 한다. 거짓말 역시 전략가의 무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법적 요소이다. 억압자와 맞설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집단이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억압 상태를 전복시키는 일은 소중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²⁶ 그런 문화권이기에 유딧은 공동체의 위기 탈출을 위해 거짓말, 기만과 야心和 성폭력 그리고 살인과 같은 폭력적 행위도 불사한다.

이제 유딧이 그 자리에서 겪었을 그녀의 경험에 대한 합리적 상상이 필요하다. 유딧이 마련한 성폭력의 자리, 그러나 저자와 독자들은 유딧이 마지막 날 밤에 펼친 잔치에서 홀로페르네스와 단독으로 대면한 가운데 그의 목을 치는 대담한 용기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유딧이 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겪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²⁷ 유딧과 적장이 만났던 그 자리, 홀로페르네스가 건넨 다음의 말을 보면 그 곳은 성폭력의 자리였음이 분명하다.

“네(바고아) 책임 하에 있는 저 히브리 여자에게 가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타일러라(12:11b). 그런 여자와 한 번도 놀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데려오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여자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12:12). 자, 어서 잔을 드시오, 우리와 함께 즐기시다(12:17).”

홀로페르네스의 이런 말들, 이것은 강도 높은 성희롱을 넘어서 유딧과의 성관계를 기대한 데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옆에 있던 바고아는 그와 유딧과의 성관계를 충동질한다. “어여쁜 아가씨,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장군님 앞에 들어가 장군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시다. 이 날은 느부갓네살 궁전에서 시중드는 앗시리아의 딸처럼 되십시오”(12:13). 그러자 유딧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럼 마시겠습니다, 장군님. 세상에 나온 이후로 오늘이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12:18)는 말로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리곤 바고아는 그 천막을 떠나 밖에서 잠가버리고 침실에는 어떤 시종들도 없이 홀로페르네스와 유딧만 남긴다.

이즈음 우리는 상상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홀로페르네스는 단지 술에 너무 취해서 어떤 짓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유딧은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느낌을 전해준다. 실제로 저자는 유딧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 “내 얼굴이 그를 유혹하여 그를 죽게 했을망정 그는 나를 범하여 더럽히거나 욕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13:16b). 그러나 그 술자리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자리인가? 홀로페르네스는 유딧과의 단독 만남을 위해 3일을 기다렸던 만큼 온갖 음담패설과 선정적인 몸짓과 시선 강간을 유딧은 겪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지나치지 않다. 말하자면 유딧은 거사(?)를 위해 마련한 온갖 종류의 성폭력(13장 16절에서 그녀가 고백한 것처럼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²⁸)을 견뎌야 했기에 어찌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가! 유딧이 적장의

26 Philip F. Esler, *윗글*, 132-134.

27 카발호(C. L. Carvalho) 역시 유딧과 홀로페르네스 사이의 성적인 함의(sexual undertone)가 있음을 지적한다. 전쟁 중에 여성의 강간은 흔한 일이었다(삿 5:30). Corrine L. Carvalho, “Judith”, *The Old Testament and Apocrypha*, Gale A. Yee, etc.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4), 969, 963-972.

28 유딧이 ‘나를 범하여 더럽히거나 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 13장 16절의 단어(μιασμοσ and αισχύνη)와 9장 2절에서 디나가 당한 성폭행을 묘사하는 단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유딧은 강간만은 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을 치기까지 홀로페르네스를 비롯한 여러 남자들의 고약한 시선과 자신의 계획이 탄로 날 것에 대한 조바심과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그녀에게 닥친(칠) 강제 추행과 강간에 대한 불안과 고통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유딧의 미모와 순결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정결법 준수와 기도와 금식의 힘을 통해 그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채색하지만 성폭력의 흔적은 감춘 채 승리의 세계만 강조한다. 유딧 자신이 계획한 성폭력의 위험, 그러나 남성 지도자들의 묵인 내지 은밀한 동조 아래 성폭력의 그 자리를 견뎌야 했을 것이다! 유딧은 유대 민족이 완전히 패한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겪었을 온갖 폭력을 알기에 혼자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을지 모른다.

3) 유딧이 퇴장되다.

온 마을은 유딧의 무사귀환으로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녀의 공로를 한껏 치하한다. 이제 대제사장 요아킴도 정면에 나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은 춤으로 이 승리를 축하하고 남자들도 이들을 뒤쫓으면서 유딧과 마을의 승리를 기뻐한다. 주민들은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축제를 벌였고, 유딧도 이들과 함께 머문다.

하지만 이후 저자는 유딧을 무대 밖으로 사라지게 한다. 저자는 유딧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세를 탔다고 하지만 105세에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서 어떤 남자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한다. 유딧의 독신 고집은 초기 기독교(티틀리안, 암브로즈, 제롬 등)에서 순결의 상징으로 사용된다.²⁹ 이렇게 저자는 유딧의 독신을 이상화하는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랍비들은 과부의 재혼을 독려하기 위하여 장애 요소를 가능한 제거했기에 오랜 기간 과부로 살았던 여성은 많지 않았다³⁰고 한다. 유딧은 생전에 여종들을 해방하였고 친척들에게 재산을 분배한 후 남편 므낫세의 무덤에 합장되었다(16:18-25)고 전해줄

29 C. Moore, 윗글, 64.

30 T. Ilan, 윗글, 151.

뿐이다. 이처럼 저자는 유딧을 그녀의 이름만 남기고 완전히 퇴장시킨다.³¹ 유딧은 단지 그녀의 외모가 필요할 때 무기로 사용되었을 뿐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의 여자로 돌아간다.

5. 유딧은 성폭력의 그 자리를 잊지 못한다!

성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폭력(性暴力, sexual violence)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성적 폭력을 묘사하는 폭넓은 행위 범주로서, 거기에는 강간, 어린이 성적 학대, 성적 괴롭힘 등이 내포된다. 거기에는 희생자의 의지를 거슬러서 혹은 진정한 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적이거나 음담패설 혹은 성과 관련된 행위가 내포될 수 있다.³²

이 정의에 따르면 유딧의 행동은 성폭력의 위험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든 공범에 가깝다. 유딧은 스스로 성폭력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또한 저자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³³

성폭력 피해자의 고백을 읽은 적이 있다. "...가해자에게는 이 일이 끝난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피해자인 나에게 이 일은 끝나지 않았다. 처음 이 일을

31 반 헨텐은 유딧을 대안적 지도자(alternative leader)라고 하지만 그녀가 남성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적장을 암살하기 위해 일시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이후 철저히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났기에 '지도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J. W. van Henten, 윗글, 240-243.

32 마리 M. 포춘, "성폭력", 190-192, 『여성신학사전』(레티 M. 러셀/J. 샬론 클라슨 (ed.): 황애경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원제는 Letty M. Russell/J. Shannon Clarkson (ed.), *Dictionary of Feminist Theologie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33 박유미는 성폭행 사건(세겜의 디나 사건, 기브라 불량배의 레위인 첩 사건과 다말의 사건)이 전쟁으로 연결되는 패턴을 연구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을 폭행한 남성의 목소리와 남성 보호자만의 음성만 들리고 여성은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남는다고 한다. 이것을 볼 때 유딧은 자발적 피해자로서 어떤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냥 묻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논단』 24(2018), 149-150.

겪고서는 망각의 동물답게 시간이 지나면 잊을 줄 알았다. 다른 경험들을 하면 지나간 괴로움은 잊히겠거니 생각했다. 잊을 수 없는 일을 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희망 고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만 몇 년이 걸렸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이 일을 잊기를 포기했다...”³⁴

유딧이 겪은 이 사건은 그녀가 몇 살 때였을까?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고 모든 남자들마다 그녀의 미모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20-30대를 넘지 않았을 것 같다.³⁵ 그렇다면 그녀는 105세,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 긴 시간을 이 기억과 함께 살아야 했을 것이다.

독자들은 유딧의 용단과 신앙과 결단력과 지도력과 지혜와 그 결과를 보고 다양한 칭호를 붙여 준다. 페미니스트, 친페미니스트 혹은 그와는 정반대로 반페미니스트와 같은 어떤 호칭이 불더라도 유딧이 민족의 영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유딧은 성폭력의 피해자 혹은 미투 운동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민족과 신앙을 지키려는 결단으로 성폭력을 견뎌야 했다. 유딧기 저자 혹은 독자들은 유딧의 이런 점을 간과한다. 유대 민족의 승리를 3개월 동안 다함께 축하한 유딧은 이후 베투리아의 ‘남편 집’³⁶으로 숨겨지고 모든 남자들과 분리된다.³⁷ 당대에 유명세를 탔다고 하지만 그녀는 누구하고도 관계하지 않았다고 한다. 저자는 그녀로 하여금 자기 재산들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중에게 자유를 주는 등 모든 것을 털어버린다. 하지만 유딧은 성폭력의 그 자리와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이다. 저자는 유딧이 민족의 영웅이요 훌륭한 경건하고 순결하며 유능하고 희생적인 여성이었다는

34 “나는 피해자다”의 일부, <https://brunch.co.kr/@wisdomcandle/18>, 2020년 2월 15일 접속.

35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로마 시대에 여성의 결혼 적령기는 12살에서 시작해서 20세 전후라고 한다. T. Ilan, *윗글*, 65-69.

36 저자는 유딧이 105세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의 집’(16:23)에서 살았다고 한다. 저자가 그녀의 집을 ‘남편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유딧은 여전히 남편 므낫세의 여자이다.

37 여성이 혼자 사는 일은 유대의 관습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아마도 이것과 함께 암몬인 아키오르의 개종 때문에 랍비들은 유딧기를 히브리 성경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학자들이 있다. D. A. deSilva, *윗글*, 2002, 107.

사실만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독자들 역시 저자의 그런 의도를 잘 따라간다.

6. 나가는 말

유딧은 자식도 없이 혼자 남은 과부이지만 유대의 전형적인 과부이거나 약하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녀는 가장(家長)으로서 집안을 운영했고 또한 자신의 족보까지 갖는다(8:1). 이렇듯 그녀의 개인적 성취는 조상들을, 특히 시므온 가계(家系)마저 보존하고 드러낼 만큼 대단하다.³⁸ 또한 마을의 승리까지 이끌었으니 이런 유딧에게 온갖 찬사를 붙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이런 찬사가 개인적으로 그녀가 겪었던 성폭력의 기억과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을까? 유딧은 자신이 원치 않는 유혹자로서 남성 지도자들의 목인 혹은 방조 아래, 급기야 적장의 목을 베고 그 성폭력의 자리에서 받은 불쾌감과 수치와 혐오를 겪는다.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 역시 그녀의 공적인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³⁹, 본인 역시 그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재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아야 했을 것이다. 어쩌면 유딧기 저자는 유딧의 이런 모습을 통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성을 무기화하고 여성의 희생을 은근히 조장하는 효과를 기대했을 지 모른다.

유딧의 이런 이야기는 오래 전의 성경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한때 국가가 너무 약해서

38 시므온은 유딧의 족보를 나열하는 8:1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9:2에서는 유딧이 시므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밝힌다. D. A. deSilva, *윗글*, 2002, 105.

39 요셉푸스가 전해주는 일화가 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국왕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히르카누스 1세(135-104 B.C.)는 어머니가 한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고 국왕 직책만 유지하라는 바리새인의 요구 때문에 그 사실을 폭로한 바리새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전체와 원수로 지냈다. 대제사장의 모친이 포로였다면 그녀의 아들 역시 순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The Antiquities of the Jews*, 13, 290-292), *The Works of Josephus*, William Whiston (tr.)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7), 354-355.

불과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강제 동원되었던 위안부 어머니들, 가정 형편상 떠밀려서 범죄의 딱지와 함께 고통스럽게 자신을 희생하는 성매매 여성들, 지금도 세계 곳곳의 전쟁터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에 신음하는 여성들, 여러 이유로 미투 운동에 차마 나서지 못하는 남녀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간다. 이들은 익명의 사람들로서 성폭력의 상처를 쉽게 지우지 못한다. 이들의 처지와 명분은 서로 다르지만 유딧이 죽을 때까지 혼자 외롭게 견뎠을 그 아픔과 고통처럼 이들 모두의 슬픔과 한(恨)을 기억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7. 참고문헌

-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D%88%AC_%EC%9A%B4%EB%8F%99, 2020년 2월 11일 접속.
-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3p2199a>, 2020년 2월 14일 접속.
- 마리 M. 포춘, “성폭력”, 190-192, 『여성신학사전』(레티 M. 러셀/J. 샤논 클락슨 (ed.); 황애경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원제는 Letty M. Russell/J. Shannon Clarkson (ed.), *Dictionary of Feminist Theologie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박유미,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논단』 24(2018), 125-155.
- 이은애, “권력과 성폭력 -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5(2019), 217-245.
- William Arndt, “*πραξις*”, 697-698,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 J. Edgar Bruns, “The Genealogy of Judith”, *CBQ* 18 (1956), 19-22.
- Corrine L. L. Carvalho, “Judith”, *The Old Testament and Apocrypha*, Gale A. Yee, etc.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4), 963-972.
- John F. Craghan, *Esther, Judith, Tobit, Jonah, Ruth* (Delaware: Michael Glazier Inc., 1982).
- Toni Craven, “Artistry and Faith in the Book of Judith”, *Semeia* 8 (1977), 75-101.
- David A. deSilva, *The Apocrypha* (Nashville: Abingdon Press, 2012).
, *Introducing the Apocrypha*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Helen Efthimiadis-Keith, “Judith, Feminist Ethics and Feminist Biblical/Old Testament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ology for Southern Africa* 138 (2010), 91-111.
- Philip F. Esler, “Ludic History in the Book of Judith: The Reinvention of Israelite Identity?”, *Biblical Interpretation* 10 (2002), 107-143.
- Margaret A. Farley, “Feminist ethics”, 229-231, *A New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John Macquarrie/James Childress (ed.) (London: SCM, 1967).
- Tal Ilan, *Jewish Women in Greco-Roman Palestine* (Peabody: Hendrickson, 1996).
- Flavius Josephus, *The Works of Josephus: Complete and Unabridged*, William Whiston, A.M. (tr.),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7).
- Amy-Jill Levine, “Sacrifice and Salvation: Otherness and domestication in the book of Judith”, 208-223, *Feminist Companion to Esther, Judith and Susanna*, Athalya Brenner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Pamela J. Milne, “What shall we do with Judith?: A feminist reassessment of a biblical heroine”, *Semeia* 62 (1993), 37-58.
- Carey A. Moore, *Judith*,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5).

George W. E. Nickelsburg, *Jewish Literature between the Bible and the Mishnah*, (London: SCM, 1981).

Jan Willem van Henten, "Judith as Alternative Leader: A rereading of Judith 7-13", 224-252, *Feminist Companion to Esther, Judith and Susanna*, Athalya Brenner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검색어

유딧

성폭력

베틀리아

(반)페미니스트

구약 외경

A Study on the Sexual Violence of Judith

Unha Chai,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il Univ.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he story of Judith is fascinating and widely read because she plays a decisive role in eliminating Holofernes, the Assyrian army general, for herself and ending the crisis of her village Bethulia. So Judith is highly praised as an ideal model or an alternative leader for successfully rescuing her community.

However, Judith's sexual violence is considered to be the main theme in the book, and it is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the story of Judith without looking into the problem of her sexual violence. This comes first in her invocation of Yahweh as "O Lord God of my father Simeon"(9:2), who took the lead of revenge for Dinah's rape (Gen 34) and who eliminated Shechem and his tribe. Judith identifies herself with Dinah and justifies her revenge on the enemy. It is of significance that she plans at the risk of running into sexual violence, but she has committed connivance with male political and religious leaders in the village.

www.kci.go.kr

She uses her beauty as a weapon against Holofernes. Taking the place of sexual violence, she suffers from verbal and sexual harassment, molestation, and perhaps rape. We hear that “it was my face that tricked him to his destruction, and yet he committed no act of sin with me, to defile and shame me” (13:16, RSV), We can imagine, however, that there must have been no small amount of her anxiety and fear about Holofernes and other men’s verbal and sexual violence.

Even though she rescued the community, she could not forget the displeasure, shame, and disgust she had experienced at the place of the sexual violence. Probably the social system and atmosphere at the time would let her go into her own private house and live alone without remarrying. The author of the story of Judith would expect the effect of highlighting Judith’s characteristic, further strengthening the patriarchal society and promoting the sacrifice of women.

But it doesn't end with a pious and beautiful woman’s heroic story that happened a long time ago. Isn't the history of various kinds of sexual violence continuing even now? We have a sad history of comfort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Young women pushed into sex industry, women still suffering from sexual assault on the battlefield around the world, and men and women who cannot participate in the Me Too movement for various reasons, who need comfort, live as anonymous people with deep wounds, physical and emotional. Their situations and causes are different, but I finish this article by remembering their sorrows, just like the pain and suffering that Judith endured alone until her death.

Keyword

Judith
sexual violence
Bethulia
(anti-)feminist
OT Apocrypha

- 투고일: 2020년 3월 30일
- 심사일: 2020년 5월 3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4일